



한라인터뷰 현경보 여론분석가

“여론 흐름 보여주는 조사… 소신껏 투표하는 지혜를”

18년간 공중파 방송사서 선거 예측 업무 전담
‘여론전쟁’ 발간… “조사결과 휘둘러선 안 돼”

4·15 총선이 다가오면서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관심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에서 18년 동안 선거 예측 업무를 전담했던 제주출신 현경보(60·사진) 여론분석가는 “선거 여론조사는 여론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하고, 여론을 조성해나가기기도 한다”고 말한다. 그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유권자들이 여론조사와 관련해 유념할 점에 대해 들어봤다.

▶을 초 ‘여론전쟁’이라는 책을 내서 화제가 됐다. 책을 쓴 계기는= ‘여론전쟁’은 1987년 대통령선거 이후 우리나라 30년 선거 역사에서 여론조사에 따라 부침하는 정치 권력의 세계와 선거에서 여론조사의 실상을 보여주는 책이다. 1997년 대통령선거 당선자 예측 여론조사를 기획하는 일을 맡은 뒤 기자로 일하면서 오랫동안 여론조사의 시각으로 선거를 자세히 들여다 볼 수 있었다. 흔히 않은 경험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다.

▶언론사들은 선거여론조사에 심혈을 기울인다. 이유가 뭘까=선거 때마다 선거결과를 미리 예측한 다거나 민심의 동향을 알고 싶은 것은 정치인이나 유권자 모두의 최고 관심사다. 대중의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언론사에서 수고와 비용을 들이는 건 당연한 일이다. 방송사의 경우 많은 비용을 들여 선거 당일 출구조사를 실시한다. 예측 실패의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한시

라도 빨리 선거결과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애쓰는 것이 언론의 숙명이 아닌가 싶다.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후보들 간의 우열을 가리는 여론조사 결과는 유권자들에게 선거 판세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므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가 우세 후보에게 대세론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도 있고, 열세 후보에게는 동정 표심을 얻게 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한 부동층 유권자들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여론조사가 유리한 후보 쪽으로 동조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 너무 휘둘러지 말고 소신껏 지지후보를 선택하는 유권자의 지혜가 필요하다.

▶여론조사로 선거 민심을 볼 수 있나=한 번의 여론조사 결과가 민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봄이 왔다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론조사가 과학적이라고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 오차(bias) 투성이다. 따라서 여론조사는 오차 한계를 감안해서 신중히 해석해야 한다. 선거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결과에 일희일비해선 안 된다. 여러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하여 비교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4년 전 총선에서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실제 결과와 달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번 총선 여론조



사는 어떻게 전망하나=2016년 총선에서는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무선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유선전화번호만 사용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는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이 무선전화와 유선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지난 선거 때보다는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는 믿을 수 있고, 불리한 여론조사는 믿을 수 없다는 식의 정파적 주장을 해서 여론조사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언론이나 유권자들이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부미현기자

현경보 여론분석가는 제주 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SBS 기자(1991~2015년)를 거쳐 빅데이터 스타트업(주)빅디퍼 연구소장으로 재직 중이다.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겸임교수,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 JIBS 제주방송 사외이사,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비상임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장에 강한일씨



제32대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장에 강한일(67·사진 두 번째) 삼원기계(주) 대표이사가 추대됐다. 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는 지난 21일 서울 가양동 탐라영재관 앞에서 제32대 회장 선거 투표를 실시해 강 대표이사를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강 대표이사는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출신으로 도민회 부회장(26~29대)과 재경안덕면민회(34~35대), 도민회 장학회 이사로 역할을 해왔다.

이날 투표에는 전체 유권자 278명 중 228명(무효 1표)이 참여했으며 강 대표이사는 총 140표를 얻어 87표를 얻은 강성연 전 서울시의원을 제치고 회장에 선출됐다. 강 대표이사는 “도민회가 갈등을 극복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제주도민회는 오는 31일 대의원총회에서 차기 회장에 대한 인준 절차에 나선다. 신임 회장은 오는 4월 1일부터 2년 동안 도민회장을 맡게 된다.

바살기제주도협의회 나무심기 행사



바르게살기운동 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회장 양방규)는 지난 19일 관음사 일대에서 임업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75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를 열고 팽배나무, 이팝나무, 배롱나무, 돈나무 등 묘목 150본을 식재했다.

성산읍발전협의회 코로나19 극복 성금



성산읍발전협의회(회장 김길호, 자문위원 오홍원)는 지난 19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했다. 이 성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산을 관내 취약계층과 마을회관·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를 위한 손소독제 구입에 쓰일 예정이다.

등정



간부공무원 비상대책회의 개최

◇김영진 서귀포시 부시장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에 따라 22일 서귀포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사항 이행을 위한 간부공무원 비상대책회의를 개최.



대정적십자봉사회 격려

◇송호철 대정읍장 지난 20일 안덕 생환체육관을 찾아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을 위해 구호물품을 제작하는 대정적십자봉사회를 격려.



3월 자동차세 납부 홍보

◇김정환 이도1동장 지난 19일 직원회의를 개최해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홍보를 당부하고, 동주민센터 방문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홍보.

제주출신 박수지씨 미국 공인회계사 합격



제주시 애월읍 출신 박수지씨(25·사진)가 최근 미국 공인회계사(AICPA)시험에 합격했다.

박씨는 박기남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전 제주동부경찰서장)의 2녀 중 장녀로 제주외고 2학년 재학 중 주뉴욕 대한민국총영사관으로 발령난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뉴저지주 릿거스 주립대와 동 대학원에서 회계학을 전공했다. 박씨는 현재 미국 대형 회계법인 딜로이트 사에 근무하고 있다.

AICPA란 미국공인회계사협회(AICPA)에서 회원 자격을 부여하는 증서로 보통 미국공인회계사로 일컫는다. 한국공인회계사(KICPA)가 주로 맡는 회계감사, 세무대리업무, 경영자문업무뿐 아니라 국제적인 경영과 회계 관련 서비스 등을 수행한다.

JDC 코로나19 대응 종사자에 위문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JDC)는 지난 19~20일 제주대학교병원, 제주도 방역대책 본부상황실, 보건소를 찾아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전해향 90박스를 전달했다. 앞서 JDC는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도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6000개와 도내 복지종사자에게 손세정용품 5000세트를 지원한 바 있다.

표선고 교사들 IBIB 등 교사동아리 창단

표선고등학교 교사들이 학교 수업에 혁신 불어넣기 위해 나섰다.

표선고(교장 정성중)는 지난 19일 'IBIB' (I Believe in IB)와 '혼디모영', '수업백신' 등 교사동아리 3개를 창단했다. 이들 동아리에는 교사 23명이 참가하고 있다. IBIB 동아리는 과목별 IB 교육과정 관련 수업과 평가방식에 혁신을 희망하는 교사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혼디모영 동아리와 수업백신동아리는 교수학습 방법을 바꾸고 수업 활동을 공유하며 학생맞춤형 수업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IBIB 동아리 문기탁 팀장은 “IB교육과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학교에 적절하게 적용할 방법을 찾기 위해 선생님들끼리 뜻을 모았다”고 했다.

상 장

제주혁신성장대상

위 기업인은 제주지역 주력산업육성사업을 통해 기업 육성발전과 일자리창출 등 제주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이를 널리 알림과 동시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9년 11월 5일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허영호

제주도 에너지공사 벤처기업 인증기업 한화 Q-CELL

나눔에너지는 제주도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태양광 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따뜻한 에너지를 만드는 기업, 나눔에너지

인증기업 / 벤처인증기업 / 고용우수기업

• 현대에너지 솔루션 소프트웨어 계약 성사

• 제주지역 단일공사 1MW급 최초 스크류공사 시행 (시공성 우수, 안정성 우수_인발테스트 리포트 결과 기준치 대비 1.5배 강함)

• 중소벤처기업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테크노파크 주관 제주지역 우수사례업체 선정, 제주혁신성장대상

"도내 1 금융권 최소 금리(2% 후반 ~ 3%초반대)로 금융까지 해결해 드립니다."

2019.06

제주도청 고용우수기업 선정 / 한화 큐셀 (Q-CELL) 제주도 큐파트너 협력기업

2019.04

벤처기업 인증 획득

2018 - 19

2년연속 제주도 에너지공사 협력사 선정

(주) 나눔에너지 | 제주도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211호

시공문의 | TEL. 064 - 745 - 0420 FAX. 070 - 8812 - 0420